

정읍 피향정(披香亭) 제영시(題詠詩) 연구

정훈(전북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2) 피향정의 여러 명칭 |
| 2. 피향정(披香亭)의 건립과정 및 제영시 특성 | 3) 접빈객과 완상 목적의 피향정 |
| 1) 최치원 이후의 중수과정 | 3. 나오며 |

1. 들어가며

피향정(披香亭)은 전주의 한벽당(寒碧堂), 남원의 광한루(廣寒樓), 순창의 귀래정(歸來亭), 옥구의 자천대(紫泉臺)와 더불어 호남의 5대 누정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의 광한루가 <호남제일루>라면 피향정은 <호남제일정>이라고 한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태산태수(泰山, 현재의 정읍 태인)를 지내는 동안 근처에 있는 연지(蓮池) 주변을 소요하며 풍월을 읊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때문에 최치원이 피향정을 지었는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하지만 최치원의 문집을 살펴봐도 피향정을 언제 지었다는 기록이 없다. 이후 여러 기록들을 살펴봐도 언제 처음 지어졌고, 어느 누가 지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광해군 때인 1616년에 현감 이지광(李志宏, 1615~1664)이 전해져 내려오는 초라한 건물을 확장하여 중건하였다고 한다. 이후 현종대에는 현감 박승고(朴崇古, 1676~1733)가 초라한 건물을

크게 증축하였고, 다시 51년이 지난 숙종 41년(1715)에 현감 유근(柳近)이 중수를 하면서 못을 파서 넓혔다. 철종 6년(1855)에 현감 이승경(李承敬)이 중수한 지 140년이 지나서 들보만 남아있던 퇴폐한 피향정을 새롭게 중수하였고, 이 때 지은 건물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현재 피향정은 팔작지붕이며 처마는 겹처마 형식이다. 내부는 마루를 깔았으며, 누정의 앞면과 뒷면에 돌계단을 배치한 점이 특색이 있다. 정자 마루의 아래에는 28개의 원형돌기등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두리기등을 세웠다. 중앙의 2개를 세우지 않고 28개를 세운 것은 우주의 28숙(별)을 따른 것이라 한다. 중앙에 기등을 세우지 않은 덕에 중앙은 넓은 공간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4면은 모두 개방된 형태이며, 주변으로 퇴를 돌리고 난간을 가설하였다. 천정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정이나 좌우 퇴량 위치 등은 우물천정을 가설한 점이 다른 누정양식과의 차이점이다.¹⁾

피향정에는 신라 헌강왕 때부터나 혹은 조선 광해군 때 이후에도 많은 문인들이 찾아 시문을 짓고 그 시문을 문집에 남겼고, 그 가운데 20여 편의 시문들이 목판에 새겨져 걸려 있다. 본고에서는 문집에 실려 있는 시문과 피향정에 걸려 있는 편액들에 새겨진 시문을 번역하고 분류 분석함으로써 피향정이 어떤 기능을 했고, 피향정과 관련된 제향시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피향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립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피향정의 건립과정 및 제영시 특성

1) 최치원 이후의 중수과정

1) 정읍시 편, 『피향정 수리조사보고서』, 정읍시, 2001, 47~48면.

신라 헌강왕 1년(887)에 태산태수를 지냈던 고운 최치원이 연지(蓮池) 주변을 거닐며 풍월을 읊었다고 한다. 이때 최치원에 의해 피향정이 건립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후 피향정의 증수와 변천과정은 정읍시에서 편찬한 『피향정 수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도	주요사항
886~887년	최치원에 의해 최초로 창건되었다는 구전이 있음.
1454년	1454년 발간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누정이 기록되어 있으나 피향정의 기록이 없음.
1480년	1480년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연지제(蓮池堤)는 있으나 피향정 기록은 없으며, 현재는 없어진 함담정의 기록은 있음.
1616년	『증보문헌비고』(1609~1622년)에 의하면 현감 이지광(1615~1618년까지 재임)이 초라한 건물을 확장하여 증건함. 피향정은 1480~1616년 사이에 창건되었으며 시대의 상황 등을 비추어 소 규모의 정자(2칸×2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
1616년 ~ 64년	『태인현지』(1786년)에 의하면 현감 박송고가 정자를 크게 증축하여 훌륭한 누정을 세웠다고 함. ※ 지금보다는 규모가 약간 작은 3칸×2칸 규모로 추정됨. 경회루(1412년)나 광한루(1434년)의 건축적 특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1715년	『태인현지』(1786년)에 의하면, 현감 유근은 앞쪽에 큰 연못(상연지)이 있어 대(통, 서까래)를 바꾸고 기와를 고치고 옛 규모를 감안하여 새롭게 증수하였으며 못을 파서 넓혔음.(피향정증수기)
1786년	『해동지도』(1747년)에는 상연지만 표기되고 하연지는 없음. 『태인현지』(1786년)는 상연지와 하연지가 구분된 최초의 기록이며, 상연지는 둘레가 500보(步), 하연지는 510보로 기록되어 있음. ※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상연지는 620.40m, 하연지는 632.81m로서 하연지가 더 큰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1856년	<p>「피향정 중수기」에 의하면 현감 이승경(1855~1856년 재임)은 정자를 지은 지 140년에 서까래는 부서지고 기둥은 기울어지고 오직 들보만 남자 새로이 증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p> <p>※ 현재 피향정의 5칸×4칸 규모의 형태임.</p>
1867년	<p>『태인현지』(1867년)에 의하면, 피향정 주위에는 상하연못이 있었으며 상연지는 둘레가 1,444척이고 깊이가 2척, 하연지는 둘레가 1,026척이고 깊이가 4척으로 기록되어 있음.</p> <p>※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상연지는 450.82m, 하연지는 320.32m로 1786년의 『태인현지』와는 달리 상연지가 더 큰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미터법 환산은 개략적 추정을 위한 참고 수치이며, 시대에 따라 약간씩 환산방법이 달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음.</p>
1916년	<p>우리나라 최초의 지적도가 일본인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이 지적도에 의해 하연지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으며, 상연지는 지목 내용, 주변 도랑, 배치 특성을 감안하여 개략적 형태를 추측할 수 있음.²⁾</p>

그동안 피향정의 건립 시기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 신라시대 최치원이 연못가를 소요할 때 건립하였다는 설³⁾과, 김재민의 시로 보아 ‘흙향정’에서 유래하였다는 설⁴⁾과, 태산군과 인의현이 합해져 태인현이 되면서 관아를 옮겼을 때 피향정이 지어졌다는 설⁵⁾ 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886~887년은 최치원이 태산에서 태수로 지내던 때였다. 피향정은 정확하게 언제 건립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최치원의 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2) 정읍시 편, 『피향정 수리조사보고서』, 정읍시, 2001년, 47~48면.

3) 장봉선 편, 『정읍군지』, 누정 피향정조, 이로재, 1936년, 61면.

4) 정읍문화원, 『94정읍 문화재총관』, 정읍시, 1994, 25면.

정읍문화원, 『정읍문화』 12호, 정읍시, 2003, 35면.

5) 심능숙, 「피향정기」(1832).

『계원필경』에도 피향정과 관련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최치원이 시인 묵객들과 음풍농월을 했다는 유상대(流觴臺)와 관련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가승(家乘)에 최치원이 태산군수 재임 시에 천지종연(穿池種蓮)이란 기록이 남아 있다.⁶⁾ 결국 피향정을 최치원이 건립했다는 것은 다만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있으면서 관정으로서 누정을 건립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향정 수리보고서에서는, 피향정의 건립연대에 대해 『증보문헌비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1480~1616년 사이라고 추정하면서, 1480년에 연지(蓮池)는 있으나 피향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살펴보면 피향정은 없지만, 피향정과 유사한 명칭인 ‘파향정(坡香亭)’이 누정조에 수록되어 있다. 누정조에는 청현루(聽絃樓), 진남루(鎭南樓), 관덕정(觀德亭)과 함께 파향정이 수록⁷⁾되어 있어서, 파향정이 객관(客館)의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현루의 청현(聽絃)이란 현송지성(絃誦之聲)을 말하는 것으로, 거문고를 타며 시를 읊는 소리로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을 말한다. 향우의 봉지인 노나라가 성의 함락을 앞두고 거문고를 연주하고 경전을 암송함으로써 태연히 평상시의 모습을 유지해 주군의 죽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륙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던 것을 말한다. 즉 ‘청현’이란 향교의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란 뜻이다. 관덕정(觀德亭)은 관덕택궁(觀德澤宮)의 줄임말로, 택궁은 활 쏘는 기예를 시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또 예기에서는 “활쏘기를 통해 성대한 덕을 볼 수가 있다.”⁸⁾라고 하였으니, 관덕정은 곧 활 쏘는 곳을 말한다. 그리고 진남루(鎭南樓)는 남쪽의 백성들을 어루만져서 편안하게 함(鎭撫)을 말한다. 즉 청현루, 관덕정, 진남루는 모두 관아와 향교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었고, 이로 미루어 파향정 역시 관아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었을

6) 정읍문화원, 『정읍문화』 12호, 정읍시, 2003, 34면.

7) 『신증동국여지승람』 34권, 전라도 태인현 편.

8) 周禮 夏官 司弓矢, 禮記 射儀(射者 所以觀盛德也).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들을 짓게 된 시기는 태산군과 인의현이 조선 태종 9년(1409, 기축년)에 합치어 한 고을이 되었고, 현을 거산역(居山驛)으로 옮겼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즈음하여 파향정(坡香亭)이 건립되었을 것이다.

이후 파향정은 이지평(1616년), 박승고(1664년), 유근(1715년), 오언부(1740년), 심능숙(1832년), 이승경(1855년)으로 이어지며 여러 차례의 중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부족한 내가 태산(지금의 태인)의 수령으로 간 이듬해(갑인년, 철종5, 1854)에 관리와 그곳의 선비들이 말하기를 “이 고을의 파향정은 오래되었으며 문창후(文昌侯: 최치원)와 문청공(文淸公)의 사적이 혁혁히 남아 있는 고을 서쪽에 있는 진정(鎭亭)도 비위서는 안 되니 새로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묻기에 대답하기를 “이는 이 지방을 지키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일에 몰두하다 보니 여가를 갖지 못하였는데, 가을에 마침 풍년이 들어 사람들의 살림에 여유가 생겨났다. 그 때 비로소 재목을 갖추고 목수를 불러 을묘(乙卯)년 2월 초순에 일을 시작하니 그 일에 인부가 2,692명이요, 장인(匠人)이 577명이요, 돈은 1600민(緡)이 들었으며, 50일이 걸려 공사를 마치게 되었다.¹⁰⁾

파향정을 지은 후 지은 「파향정 중수기」에서 이승경은 파향정이 비록 좁은 들에 자리하고 있으나 주변의 경관이 좋아서 ‘호남에서 제일가는 구경거리’라고 평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상연지가 메워져 도로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면사무소로 사용되었다가 1957년에 원상으로 회복되었다.

2) 파향정의 여러 명칭

현재 학계에서 두루 쓰이는 ‘누정’이란 용어는 누와 정이 결합된 말로,

9) 『신증동국여지승람』 34권, 전라도 태인현 편.

10) 정읍문화원, 『정읍문화재지』, 정읍시, 1999, 59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건축물을 하나로 묶어서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각 용어에 따라 그 기능이 분명하였다. 누정과 관련된 용어로는 정(亭), 누(樓), 대(臺), 각(閣), 당(堂), 헌(軒), 사(榭) 등이 있다.

정(亭)은 주로 경관 좋은 곳이나 원림에 세우는데, 주로 단층건물인 경우가 많다. 지붕과 기둥만을 설치하고 사방이 트이도록 만든다. 간혹, 벽이나 창을 둘러서 부속건물을 만들기도 한다. 보통 누(樓)는 2층 이상의 높은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방을 두루 관람할 수 있도록 창이 개방된 형태를 지닌다. 바닥은 주로 마루로 이루어졌으며 주변을 난간으로 둘러놓았다. 주변 경치를 완상할 수 있는 강가 등 경치 좋은 곳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누와 정은 주로 손님을 접대하며 휴식이나 연회공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대(臺)는 흔히 지대가 높은 곳에 정과 같은 건물을 올린다. 특별한 경우, 건물이 없을 수도 있다. 높은 곳에 짓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각(閣)은 사방에 지붕의 비탈면이 있고, 사방에 창을 낸 건물이다. 정(亭)의 형태와 기능이 비슷하여 ‘누각’이라고도 한다. 당(堂)은 격식이 있는 건물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전(殿) 건물에 비해 민간에서 공식적이고 중심이 되는 건물의 명칭에 사용하였다. 헌(軒)은 맞배지붕 형태의 건축물로 공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에 주로 사용하였다. 사(榭)는 정자와 유사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높은 대지 위에 세우고, 사방에 창을 두거나 개방하는 형태의 건물도 있다. 이 중에는 단순히 경치를 즐기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문루나 장대와 같이 군사적 기능을 겸하는 것도 있고, 숙박을 겸하는 기능을 가진 당(堂)이나 각(閣)도 있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연못 주변을 오가며 풍월을 읊었다고 하는 전설 때문에 연지가에 누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그 누정의 존재는 확실치 않다.

여기서는 태인의 연지가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누정과 관련된 여러 명칭을 살펴봄으로서 그 존재와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향정의 명칭과 관련된 다른 명칭으로는 파향정(坡香亭, 임억령 외), 흡향정(吸香亭, 김재민), 피향정(披香亭, 양경우, 김상헌, 김창협 외 다수), 피향각(披香閣, 양경우), 피향당(披香堂, 유세명 외) 등이 있다. 이러한 명칭이 출현한 시기를 각종 문집에 나타난 시문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작자	생존연대	출처
0	연지 蓮池 유상대 流觴臺	최치원	857(문성왕 19)~?	
	연지 蓮池	①김종직	1431(세종 13)~1492(성종 23)	佔畢齋集 卷21
1	파향정 坡香亭	신 잠	1491(성종 22)~1554(명종 9)	頭陀草 卷9
		②임억령	1496(연산군 2)~1568(선조 1)	練藜室記述
		신증동국 여지승람	1530년(중종 25)	新增東國輿地勝覽 泰仁篇
2	흡향정 吸香亭	③김재민	1527(중종 22)~1599(선조 32)	鰲峯先生集 卷1
3	피향정 披香亭	④김상헌	1570(선조 3)~1652(효종 3)	淸陰先生集 卷2
		김지수	1585(선조 18)~1639(인조 17)	苔川先生集 卷2
		조종지	1631(인조 9)~1690(숙종 16)	南岳集 卷1
		유명친	1633(인조 11)~1705(숙종 31)	退堂先生集 卷5
		이하곤	1677(숙종 3)~1724(영조 즉위)	頭陀草 17冊
		유근	1715 정읍 현감 재임 시	披香亭重修記
		위백규	1727(영조 3)~1798(정조 22)	存齋集 卷24
		황윤석	1729(영조 5)~1791(정조 15)	頤齋遺稿 卷5
		심능숙	1782년(정조 6)~1840년(헌종 6)	披香亭記

		조두순	1796(정조 20)~1870(고종 7)	心庵遺稿 卷29 披香亭記
		이승경	1856 정읍 현감 재임 시	披香亭重修記
4	피향각 披香閣	⑤양경우	1568(선조1)~1629(인조 7)	霽湖集 卷8
5	피향당 披香堂	⑥고인계	1564(명종 19)~1647(인조 25)	月峯先生集 卷2
		허 균	1608년(선조 41년)	蘭雪軒集 年譜
		신 유	1610(광해군 2)~1665(현종 6)	竹堂先生集 卷5
		유세명	1636(인조 14)~?	寓軒先生集 卷1
		임수간	1665(현종 6)~1721(경종 1)	遯窩遺稿 卷1
		신광수	1712(숙종 38)~1775(영조 51)	石北先生集 卷4

문집에 실려 있는 명칭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면 <연지-피향정-흡향정-피향정-피향각-피향당> 순서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이른 시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명칭은 ‘피향정’이다.

최치원이 연지(蓮池)가를 소요하며 지냈을 때 누정을 세웠는지, 그 누정의 명칭은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없다. 다만 최치원과 직접 관련된 용어로는 연지(蓮池)와 유상대(流觴臺)가 있다.

태고태산군은 문창후 최치원이 수령으로 있었다. 이 누대는 지금 천여 년이나 비어 있고 유적이 남아 있다. 치소의 서쪽에 정루가 있는데, 그 문에 <호남제일정>이라 쓰여 있고, 정자의 위쪽에 연못이 있고, 정자의 아래쪽에 연못이 있다. 위쪽 제방은 둘레가 500무이고, 아래쪽 제방은 더 넓다. 정자가 그 사이 섬에 놓여 있는데, 편액에 <피향>이라 적혀 있다. 단청이 높고, 안에 온돌, 밖에 사랑이 있고, 주변으로 화려한 난간이 있으며, 기둥은 20개이다. 여러 차례 칠하고 수리했지만, 어느 때가 처음인지 기록이 없어서 추측하여 알 뿐이다. 조선 초기에 인의현을 합하여 태인(泰仁)이라 하고 치소를 이쪽

으로 옮겼다. 생각건대 정자를 만든 것은 아마도 읍을 옮기던 때가 아닐까 한다. 읍의 삼면은 산으로 둘러있고 오직 서쪽만이 트여 있었다. 가로막는 독이 없어서 그 곳에 정자를 우뚝하게 세워 그 빈 곳을 진압하였다. 그러니 정자를 이때에 설치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¹¹⁾ 내가 일찍이 고운이 ○한 승문팔괘(升門八卦)의 서문에 ‘피향거사’라고 하였고, 제목에 ‘피향진갈’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보았으니, 이 정자를 그리워하며 그 곳에서 잤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내 어린 시절 읍리 ○에게 들었다.¹²⁾

심능숙(沈能淑, 1782(정조 6)~1840(헌종 6))은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고부군수 윤지(允之)의 아들이다. 조인영(趙寅永)·조종영(趙鍾永)·서유찬(徐有贊)·이희평(李羲平)·최원도(崔元度) 등과 교유하였으며, 1832년부터 1835년(헌종 1)까지 태인현감을 지냈다. 심능숙은 「피향정기」에서, 피향정과 최치원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어릴 때 읍리(邑吏)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피향정’의 명칭이 최치원이 사용한 ‘피향거사’에서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향정의 모습은 온돌과 사랑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11) 『신증동국여지승람』 34권, 전라도 태인현 편.

간치연혁: 태산군은 본래 백제 대시산군(大尸山郡)이었는데, 신라 때 태산으로 고쳤다. 태(太)는 태(泰)로도 통한다. 고려 때 고부군에 붙였다가 후에 감무를 두었고, 공민왕 3년에 현 사람으로서 원나라 사신인 임몽고불화(林蒙古不花)가 나라에 공이 있다 하여 군으로 승격시켰다. 인의현(仁義縣)은 본래 백제 빈굴현(賓屈縣)·부성(賦城)이라고도 한다. 이었는데, 신라 때 무성(武城)으로 고치어 태산군의 영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때 인의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태산감 무에게 와서 겸하게 하였으며, 현종 10년에 각각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9년에 또 합치어 한 고을로 만들고,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현을 거산역(居山驛)에 옮겼다.

12) 심능숙, 「피향정기」, 夫秦古泰山郡 崔文昌仍守 茲臺今千餘年厥 有遺跡 治之西 有亭樓 其門曰 湖南第一亭 亭之上曰池 亭之下曰池 上堤周五百武 下堤愈廣 而瀾於其間島居焉 額曰披香 丹碧穹然 內埃外軒 周以華檻 間計二十 累經繪葺 未知防於何時 無記可曉謹稽 國初合仁義縣 名曰泰仁 移治於茲 意者亭之設殆移 邑時耶 邑之三面環以山 雖西豁焉 無障堤以儲之亭以峙之鎮其虛也 然則亭之設於 是時也 無疑也 己憑曾見孤雲所者升門八卦 則序稱披香居士 而題曰披香真訣名 斯亭者 慕而寓之歟 余童年聞有邑吏○.

그러나 최치원 이후 거의 500~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조선초기의 인물이었다던 점필재 김종직이 사용한 명칭은 ‘연지(蓮池)’이다.

「태인의 연지가에서 최치원을 생각하다(泰仁蓮池上懷崔致遠)」

할계하던 당일에 맑은 덕행 전파했기에	割雞當日播清芬
사람들은 가시나무에 난새가 앉았다 하였네	枳棘棲鸞衆所云
천재에 시 읊던 그 혼을 어디에서 찾을꼬	千載吟魂何處覓
일만 자루 연 줄기에 일만의 고운이로다	芙蓉萬柄萬孤雲 ¹³⁾

김종직은 조선초기인 1431(세종 13)~1492(성종 23)까지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태인의 ‘연지’라고 시의 제목을 정하였다. 이 제목으로 미루어 볼 때, 연지가에 세워진 누정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연지라고 하였거나, 아니면 이전에 세워진 누정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라졌기 때문에 따로 누정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¹⁴⁾

할계는 우도할계(牛刀割雞)의 준말로, 큰 재능이 아주 작은 데에 쓰임을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는 곧 신라(新羅)말에 최치원(崔致遠)이 당(唐)나라에서 과거 급제하여 벼슬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가시나무에 난새가 앉았다고 하는 것은 큰 인재가 작은 고을을 맡아 오랫동안 머물러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장차 평소의 포부를 펴 보려고 하였지만 나라가 쇠망해 가는 터에 외직인 태인태수(泰仁太守)가 되었던 일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때 왕환(王渙)이, 구람(仇覽)이 주부(主簿)를 맡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인재가 작은 자리에 앉았다고 여겨 “탱자 가시는 난봉이 깃들 곳이 아니니, 백리(百里)의 작은 고을이 어찌 대현(大賢)이 있을 곳이겠는가?”¹⁵⁾ 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사용되는 명칭이 ‘파향정(披香亭)’이다. 파향정 역시

13) 김종직, 『점필재집』, 제21권, 泰仁蓮池上懷崔致遠.

14) 누정이 퇴락하여 없어졌을 경우에도, 후세의 인물들이 그 자리를 찾아 시문을 지을 경우에 대부분 예전에 그 곳이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언급한다. 하지만 김종직은 예전에 누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15) 『후한서』 권106 순리전, 구람전.

세워진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간행)의 누정조에 그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많다.

정곤의 기문에 이르기를, “태인현은 곧 옛날의 태산과 인의 두 고을인데, 우리 조정에서 두 고을의 이름을 아울러서 태인이라 하였다. 읍내는 옛날 태산의 동쪽 구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인의의 백성들이 왕래하는데 병통으로 여겼다. 병신년(1416, 태종 16) 가을 8월에 현감 황경돈(黃敬敦)이 두 고을의 중간 지점인 거산역 옛 객관을 현의 객관으로 삼았으나 너무 좁고 누추하였다. 무술년(1418, 태종 18) 겨울에 오치선(吳致善)이 이어 와서 드디어 옛 객관의 서쪽에 지세를 살피고, 기해년(1419, 태종 20) 가을에 비로소 후청(後廳)·동서침(東西寢)·남청(南廳)·동서행랑(東西行廊)을 세우니, 모두 몇 칸이다. 신축년(1421, 세종 3) 여름에 안기(安起)가 오공(吳公)의 뜻을 이어받아 좌우랑(左右廊)·좌우마구(左右廡)·대문·고옥(庫屋)·향교·성전(聖殿)을 더 세우니, 모두 몇 칸이다.” 하였다.¹⁶⁾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서 따르면 태산과 인의현을 합해서 태인현이라고 한 후에, 거산역을 객관으로 삼았다. 무술년(1418)에서부터 신축년(1421) 사이에 현에 필요한 각각의 공공건물을 세우고, 향교와 성전까지 모두 지었다. 누정조에 올라 있는 청현루, 관덕정 등은 모두 향교와 관련 있는 건물들이다. 즉 향교가 지어지면서 청현루, 관덕정, 파향정 등이 연달아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파향정은 1419년 이후에 세워졌음이 분명하다.

파향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인현 누정조와, 『연려실기술』 명종조 명신 편에 나온다.

「태인(泰仁) 파향정(坡香亭)을 지나다가 시를 쓰기를,
 원량(元亮)은 새로 땅에 묻혔고 元亮新埋地
 고운(孤雲)은 옛날에 하늘에 올랐다 孤雲舊上天
 다만 못 물만 남아 있어 空餘池水在
 흰 이슬은 가을 연꽃에 떨어진다 白露滴秋蓮¹⁷⁾

16)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태인현 궁실객관조.

석천 임억령이 태인의 ‘과향정’을 지나면서 쓴 시이다. 석천과 임억령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임억령은 152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서 62세(1557) 담양부사가 되었다. 이 시는 담양부사로 부임하기 위해 담양으로 내려가면서 태인을 지날 때 지은 시일 것이다. 기구에 있는 ‘원량’은 신잠(申潛)¹⁸⁾의 자(字)이다. ‘원량이 새로 땅에 묻혔다’는 말은 태인현감을 지냈던 신잠이 얼마 전인 1554년에 죽었음을 말한다. 예전에 최치원은 하늘에 오르고, 신잠마저 사라진 연지가에 다만 가을철 시들어 가는 연꽃위로 흰 이슬만 떨어진다. 다소 쓸쓸한 느낌을 토로하였다.

신잠, 임억령 등이 태인을 지날 적에 연지가에는 과향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530년에 지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과향정이란 명칭은 존재한다. 결국 과향정은 1419~1530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종직의 시와 임억령의 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과향정은 피향정의 전신으로 생각된다. .

다음으로 『정읍문화재총관』 등에서 제기한 ‘흡향정’설이다. ‘흡향정(吸香亭)’이란 명칭은 김재민(1527~1599)의 문집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한다.

「흡향정에서(題吸香亭)」

시산 남쪽 언덕에 큰 연못이 둘러 있고
양쪽 언덕 인가에는 푸른나무 가을 드네

詩山南畔大池周
兩岸人家碧樹秋

17) 『연려실기술』 11권, 명종조의 명신편.

18) 신잠(申潛, 1491~1554) 본관은 고령, 자는 원량(元亮), 호는 영천(靈川)이다. 1519년(중종 14)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제수됨, 1543년(중종 38)에 주부로 기용되어 태인 현감으로 부임함. 재임 7년 동안 동서남북에 사학당(四學堂)을 세워 유학을 크게 장려하는 치적을 남기고 강원도 간성군수로 이임하니 고을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우고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제사를 지내는 한편 그의 가족들의 소상(塑像)을 만들어 성황당(城隍堂)에 봉안하고 삭망(朔望) 때월 초하루와 보름에 제를 올려 태인 고을의 안녕을 기원함. 현재까지 공덕비가 피향정 근처에 남아 있음.

붉은 빛의 수많은 줄기 비단처럼 아름답고	紅嫩萬莖花錦艷
푸르고 둥근 연잎은 동전처럼 겹쳐 있네	翠圓千疊葉錢浮
먼 산에 으르렁거리던 비구름 이제 그쳐가고	吟邊遠岫含殘雨
교외의 석양빛은 누각을 반쯤 비추네	郊外斜陽暎半樓
취한 채 늦도록 돌아갈 길 모르고	醉裡不知歸路晚
자꾸 잔을 권하며 이별의 아쉬움 표하네	深盃頻勸寫離愁 ¹⁹⁾

시산(詩山)은 태인면(泰仁面)의 옛 이름이다. 시산의 남쪽은 곧 현재의 피향정이 있는 연못이다. 양쪽 언덕으로는 민가가 형성되어 있다. 함련의 붉은 빛과 푸르고 둥근 연잎은 석양빛에 물드는 연줄기와 연잎을 표현한 것이다. 경련은 피향정의 위치를 말하였다. 피향정은 사망으로 트여 있어서 낮은 정자에만 올라도 먼 곳까지 시야가 트인다. 먼 곳의 구름과 교외의 석양빛이 누각을 비추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는 친구가 떠나야 할 시간이다.²⁰⁾ 하지만 친구를 보내는 슬픔에 밤늦도록 술을 권한다.

김재민(金齋閔, 1527~1599)은 호가 오봉(鰲峯)으로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일재 이항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1558년(명종 13) 진사시에 입격하고 1573년(선조 6)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화순 함양 현감을 지냈고 순창군수 재임 중에 임진왜란을 당했다. 수련에서 말하는 시산(詩山)은 정읍시 태인면(泰仁面)의 옛 이름이다. 남쪽의 큰 연못과 붉고 고운 연꽃들, 양안의 인가는 곧 흡향정이 물 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교외의 석양빛을 감상할 수 있는 누각들은 모두가 현재 피향정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1570년대 순창군수로 재임하던 시절은 현감 이지평(1615~1618년 재임)이 초라한 건물을 확장하여 증건하기 이전 피향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피향각’은 양경우의 문집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한다. 양경우는 같은 문집

19) 김재민, 『鰲峯先生集』 卷之一, 七言四韻, 題吸香亭.

20) 관정으로 사용되었던 누정은 환영과 전별의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내에서 ‘피향각’이란 명칭 외에도 ‘피향정’이란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피향정이란 명칭은 1400년대 중반에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지평의 중수와 박승고, 이승경 등의 증건 등 여러 차례 증건을 거치면서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된 명칭이다.

「피향정에서披香亭用石川韻」

객이 찾아와 관정에 머무는데	客到官亭宿
쓸쓸한 팔월이어라	蕭條八月天
구름 낀 가을하늘은 오경인데도 어둡고	秋陰五更黑
차가운 비에 연꽃이 다 시들었네	涼雨敗池蓮 ²¹⁾

제호 양경우는 피향정을 찾아서 석천 임억령의 시에 차운하였다. 기구는 피향정이 관정(官亭)으로 쓰였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손님이 찾아오면 관정으로 인도하여 숙박을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때는 벌써 팔월이라 쓸쓸한 가을기운이 찾아들고 차가운 비에 연지의 연꽃들은 모두가 시들었다.

숙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명칭들로는 피향각(披香閣), 피향당(披香堂)이 있다. 양경우의 경우, ‘피향정’이란 명칭과 ‘피향각’이란 명칭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피향당’이란 명칭은 유세명(柳世鳴), 임수간(任守幹), 권필(權鐸), 장유(張維) 등이 사용하였다.

「함께 피향당에서 자며(同宿披香堂韻)」

호남을 떠돌다 만난 옛 친구	湖海飄零見故人
피향당 안 가득 웃음소리 마냥 친진하여라	一堂歡笑摠天真
민수(澗水)와 같은 술이 뭐 필요할까 樽中不用如澗酒	
맑은 자리에 앉아 마주보며 새벽을 맞네	淸坐相看自到晨 ²²⁾

21) 양경우, 『霽湖集』 제3권, 五言絶句.

22) 장유, 『계곡선생집』 제33권, 七言絶句, 2백 91수(首), 和崎翁湖行錄.

계곡 장유(1587(선조 20)~1638(인조16))가 기옹의 「호행록」에 대하여 지은 시이다. 여기서 ‘피향당’은 숙박을 할 수 있었던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남 혹은 세상을 떠돌다 다시 만난 옛 친구들이 피향당에 함께 모인 반가운 심회를 노래하였다. 좋은 자리에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 굳이 민수(漚水)처럼 많은 양의 술도 필요치 않다.

피향정과 관련된 명칭은 피향정의 기능을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피향정은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유래가 분명치 않지만, 과향정, 흡향정, 피향정, 피향각, 피향당 등의 명칭을 거처게 되었지만, 숙박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누정의 기능에 충실한 명칭인 피향정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접빈객과 완상 목적의 피향정

피향정은 건립 이후에 여러 명칭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715년에 피향정을 증건하면서 작성했던 유근(柳近)의 증건기문에서는 피향정의 모습과 기능이 나타난다.

피향정자는 높고 드러나지도 않고, 험걸차고 웅장하다고 할 수도 없다. 처음 경영이 작았으니 이는 손을 맞는 데 편리함을 취함이었으나 앞으로 큰 뜻이 있어 특별히 사물을 구경하는 데 마땅함이 있다. 백 이랑 잠긴 지경은 전당 호를 대한 듯, 열 길 핀 꽃은 마침 옥색에 종자를 옮긴 듯, 이슬에 젖은 붉은 연은 우거지고 바람에 날리는 푸른 일산이 건들거린다. 주렴계의 후원에서 물리를 고요히 보는 것처럼 정결한 식물의 맑음을 받았으니, 대숲에서 세상 생각을 멀리 보내길 원하며 어찌 화로에 향을 사르길 기다리리오. 잠깐 편안하게 자는데 맑게 어리니 난실에서 향기나는 것처럼 즐겁고, 자못 영군의 좌석과 같아 오래 기운이 머물었고 박망후에서 뗏목 타던 것이 가소롭고, 멀리 편히 쉴 곳을 구함에 만다라에 흩어진 비를 의심하였으니, 색이 빔이며, 태울성이 물결에 뜬 것도 아니요. 누가 헤치고 떨침이며, 여가 날에 옛사람이 이름한 곳을 얻어 구경할까.²³⁾

피향정의 첫 번째 기능으로 언급한 것이 ‘손을 맞는데 편리함’을 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피향정의 위치로 보아, 피향정은 정읍현에 속한 공적기관의 누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⁴⁾ 이 때 태인을 찾는 손님들을 접대하고자 현청 가까운 곳에 가장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 누정을 세웠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태인사또 유연과 함께 연제가에서 한가롭게 술을 마시며(與泰仁倅柳公堤酌酒閑話於蓮堤上)」

거문고 줄처럼 뻗은 긴 제방에 버들이 우거지고	長堤絃直柳陰陰
제방 아래 푸른 물결은 깊이가 얼마인가	堤下清波丈許深
십 묘의 붉은 구름 거울처럼 펼쳐 있고	十畝紅雲鋪鏡面
산중턱에 날리던 비는 술잔에 떨어지네	半山飛雨落盃心
저물녘 집집마다 연기가 막 일어나고	千村向晚烟初起
가을을 맞는 잎사귀는 저절로 소리나네	一葉迎秋籟自吟
밤 깊을수록 더욱 무한한 정취가 일어나니	入夜重添無限趣
달빛에 연 그림자는 마음을 상쾌하게 하네	月輝荷影爽塵襟

위 시는 김재민이 태인사또로 있는 유연을 찾아가 피향정에서 술을 마시던 광경을 시로 읊은 내용이다. 김재민(金齋閔, 1527(중종 22)~1599(선조 32)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1573년(선조 6)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23) 유근, 「피향정중건기문」.

<전략>披香之爲亭也，非高明寬敞之稱 非輪奐壯麗之謂 始營小寔 取便於延賓，前臨大池，別有宜於翫物，百頃涵境 若對錢湖之塘，十丈開花 會移玉井之種，露紅之苒苒風，翻翠蓋之依依，濂園物理之靜觀，受淨植之清 願竹世慮之遺遺，何待薰爐之焚燒，乍燕寢之凝清，悅欄室之生臭，殆同令君之坐席，長留 可笑博望之乘，遠求安息，疑曼陀之散雨，卽色空兮非太乙之泛波 孰披拂兮聊暇日而寓賞，<하략>

24) 한벽당의 경우를 보면, 누가 중수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소유권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자의 경우, 후학양성을 위한 강학의 기능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감상의 기능이 주가 된다. 관정의 경우는 관청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대하고 전별하는 기능이 주가 된다. 정훈, 『한벽당 제영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27집, 2006. 참조.

황학을 탄 선인은 떠나가 돌아오질 않네	黃鶴仙人去不歸
두 사람의 풍류는 하늘 밖 멀리 있고	二子風流天外遠
임옹의 유묵은 세간에 희미하네	林翁翰墨世間稀
연못에 물이 가득하니 연대가 짧고	陂塘水滿芰荷短
촉옥새 한 쌍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네	屬玉一雙來去飛 ²⁶⁾

위 시는 제호 양경우(梁慶遇, 1568년(선조 1)~?)가 지은 칠언율시이다. 양경우는 선조~인조 연간에 활동했던 문장가이다. 이 시기는 현감 박승고가 피향정을 크게 증축하였던 시기와 일치한다. 두련에서는 피향정에 많은 제영시가 걸려 있음을 말하였다. 함련에서는 푸른 소를 타고 나간 노자와 황학을 타고 황학대에서 황학을 타고 떠난 선인은 모두가 도가적 인물들이다. 경련의 임옹(林翁)은 석천 임억령을 말한다. 석천은 이곳을 지나면서 고운 최치원을 회상하는 시를 지었고, 이 시는 오래도록 후세의 시인들에게 널리 읽혔다. 연못에 물이 가득하여 연대가 짧고 촉옥새 한 쌍이 날아다니는 모습은 상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다시 현실로 되돌아옴을 나타낸다. 이 구절은 소상(蘇庠)이 지은 ‘청강곡(淸江曲)’의 첫구(屬玉雙飛水滿塘)를 전고(典故)로 이용하였다.

피향정의 세 번째 기능은 고인에 대한 회상이다. 좋은 경치에 누정이 존재함으로써 시인들은 시를 읊어 자취를 남긴다. 그리고 후대의 시인들은 또한 그들을 좇아 차운하며 고인을 회상하고 추억에 잠긴다.

『피향정에서, 석천의 시를 차운하여(披香亭 次石川韻)』	
고운 최치원과 석천 임억령은	孤雲與石川
학을 타고 이미 하늘로 돌아갔네	駕鶴已歸天
홀로 연못에 눈이 내리니	獨來池上雪
어느 곳에서 가을 연꽃을 구경할꼬	何處賞秋蓮 ²⁷⁾

26) 양경우, 『제호집』 8권, 七言律詩.

27) 이하곤, 『頭陀草』 제9책, 詩○南行集上卷之方.

피향정과 관련된 시들은 연꽃이 피어 있는 늦여름이나 가을을 계절적 배경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이하곤이 지은 위의 시는 독특하게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운과 석천을 추억하며 오른 피향정에 눈이 내린다. 피향정이란 곧 연꽃이 가득 피어 있는 공간을 상정하고 정자에 오르지만, 피향정과 관련된 고운 최치원이나 석천 임억령은 이미 사라졌고, 피향정에 어울리는 연꽃도 이미 사라졌다. 겨울에 내린 눈 사이로 보고 싶었던 연꽃이 사라진 것처럼 고운 최치원과 석천 임억령은 하늘로 사라졌다.

피향정의 네 번째 기능은 휴식과 완상의 공간이다. 누정이라는 피향정의 실제 기능과 가장 근접하고, 이와 관련된 시문도 가장 많이 발견된다.

「태인을 지나며, 잠시 피향정에서 쉬다 過泰仁, 暫憩披香亭」	
변방으로 쫓겨난 객이 가는 길을 빌어	天涯逐客稅征鞭
유명한 피향정에 올라 눈을 크게 떠 보네	一上名亭縱目長
한 차례 소나기에 대나무 빛 더하고	經雨翠筠偏送色
바람맞은 붉은 연꽃은 향을 이기지 못하네	受風紅藕不勝香
층층난간 높은 누대엔 이미 가을 기운 들고	層欄高棟已秋氣
멀리 수평선엔 해가 지려 하네	遠水平蕪欲夕陽
홀로 시 읊으며 나그네의 외로움 견디는데	孤詠更堪羈抱劇
채색구름은 멀리 서쪽에서 갈마드네	彩雲迢遞隔西方 ²⁸⁾

오도일은 임오년(1702) 여름에 민언량(閔彦良)의 옥사에 연루되어 장성(오산)으로 이적되면서 이 시를 지었다. 수련에서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전남 장성으로 이적되어 나아가는 길을 말한 것으로, 변방으로 가는 길에 그 유명하다는 피향정에 올라 보았다. 연꽃가의 대나무는 소나기를 맞아 빛을 뿜내고, 연꽃 향기는 바람결에 실려온다. 누대가 높으니 바람은 가을 기운이 들어 쌀쌀하고, 멀리 수평선으로 해가 지려 하면서 쓸쓸함을 더한다. 장성으로 유배되는 먼 길을 나선 나그네의 심사는 외로운데, 채색구름 있는 곧 즉 임금님 계신 곳의 소식은 멀리 있기만 하다.

28) 오도일(吳道一), 『西坡集』 제9권, 詩○鰲山錄, 壬午夏 又移謫長城 長城號鰲山.

「태인현에서(泰仁縣齋)」

예전 피향정을 지날 적에	我昔披香亭上過
피향정 위로 달빛이 밝았었지	披香亭上月明多
맑은 향기 속 한 동이 술에 취하니	一樽醉倒清香裏
바람은 서호 십 리 연밭에서 부네	風動西湖十里荷

其二

봄바람 맞으며 시산에서 수레를 타고	春風阜蓋又詩山
그대를 맞아 동이 술로 기쁨을 다하네	樽酒逢君盡意歡
한결같이 피향정으로 떠오른 달	一樣披香亭上月
지난 해 보았던 절경이 오늘 밤 같네	今宵絕勝去年看 ²⁹⁾

임방(任墜, 1640(인조 18)~1724(경종 4))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자는 대중(大仲), 호는 수촌(水村)이다. 기사환국(1689) 때 사직하였다가 단양군수·사옹원첨정 등을 역임하였다. 시 전편으로 풍부한 감성이 넘쳐흐른다. 달 밝은 밤에 상연지·하연지에서 불어오는 진한 연꽃 향을 맡아가며 술에 취한다. 그러한 정경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피향정이란 이름난 누정에서 친구를 만나고 절경을 감상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눴다. 친구와 함께한 피향정의 모습은 여전하고, 지난해에 보았던 절경은 한결같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향정은 태인을 찾는 손님을 접대하고 그들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객관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관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손님을 맞이하여 접대하기 편하였고, 한쪽으로 온돌방을 만들어 밤늦도록 경치를 즐기며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손님을 맞이하여 술을 마시고, 서로 지었던 시문은 훗날 현판에 새겨져 누정에 걸렸다. 그 뒤로 이곳에 다시 들러서 추억을 회상하고, 고인들의 시문을 감상하며 그들을 회고하는 일상이 그려진다.

29) 임방(任墜), 『水村集』 제4권, 泰仁縣齋 示主倅李姪宥 癸未.

3. 나오며

신라시대 최치원이 태산태수를 지내면서 연못가에 누정을 지어 풍월을 읊었다는 전설이 있었다. 하지만 고려시대를 지나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1600년대인 광해군대에 와서야 문헌에 나타난다.

피향정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피향정은 태산군과 인의현이 합해진 때인 태종 9년(1409)을 즈음하여 건설되었을 것이다. 이후 이지평, 박승고, 유근, 이송경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문집에 나타나는 피향정 관련 명칭들이 있다. 이들 명칭은 누정이 세워진 장소 혹은 누정의 기능에 따라서 각각 파향각, 피향각, 피향당, 피향정이라고 하였다.

피향정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경치 좋은 곳에 세워져 있고, 관청에서 가깝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는 데 편리하였다. 둘째, 손님 접대를 하다가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진 경우 그 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셋째, 고인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겼던 장소인 만큼 그 사람들을 회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넷째, 누정의 고유기능으로서 휴식과 완상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누정은 한번 세워지면 수차례의 중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문을 양산한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많은 시문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진한 편이다. 누정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에 따라서 누정제영시도 누정과 관련된 특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누정제영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누정의 특성을 좀더 정밀하게 분류해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신라시대 최치원이 태산태수를 지내면서 연못가에 누정을 지어 풍월을

있었다는 전설이 있었다. 하지만 고려시대를 지나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1600년대인 광해군대에 와서야 문헌에 나타난다.

피향정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피향정은 태산군과 인의현이 합해진 때인 태종 9년(1409)년을 즈음하여 건설되었을 것이다. 이후 이지평, 박송고, 유근, 이송경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문집에 나타나는 피향정 관련 명칭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명칭은 누정이 세워진 장소 혹은 누정의 기능에 따라서 각각 파향정, 피향각, 피향당, 피향정이라고 하였다.

피향정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경치 좋은 곳에 세워져 있고, 관청에서 가깝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는 데 편리하였다. 둘째, 손님 접대를 하다가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진 경우 그 자리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다. 셋째, 고인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겼던 장소인 만큼 그 사람들을 회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넷째, 누정의 고유기능으로서, 휴식과 완상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최치원, 피향정, 흡향정, 정읍 태인, 누정제영

<참고문헌>

- 김종직, 『점필재집』.
대한 건축사협회, 『한국전통건축 3집, 누정건축』, 1996.
문화재청, 『보물 289호, 피향정』, 문화재청, 2001.
심능숙, 「피향정기」.
양경우, 『제호집』.
오도일, 『서파집』.
유근, 「피향정기」.
이창룡,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정』, 푸른사상, 2007.
이하곤, 『두타초』.
임방, 『수촌집』.
장봉선 편, 『정읍군지』, 이로재, 1936.
전라북도 정읍시, 『피향정, 수리보고서』, 2004.
전라북도, 『내 고장 전북의 뿌리』, 1983.
전라북도, 『전라북도지』 3권, 1991.
정론출판사, 『한국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정론출판사, 2002.
정읍군, 『정읍군사』, 정읍군 문화공보실, 1985.
정읍문화원, 『94 정읍문화재총관』, 정읍시, 1994.
정읍문화원, 『정읍문화』 12권, 정읍시, 2003.
정읍시편, 『피향정 수리조사보고서』, 정읍시, 2001.
정인국, 『한국건축 양식론』, 일지사,
정훈, 「남원 광한루의 누정제영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7집, 2008,
정훈, 「한벽당 제영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27집, 2006,
태인향교 편찬위원회, 『태인향교지』, 1997.
한국 문화재청, 『피향정, 실측조사보고서』, 2001.
한국문화유산답사사회, 『전북』, 돌베개, 1994.

『신증동국여지승람』 34권, 전라도 태인현 편.

『연려실기술』 11권.

〈Abstract〉

A Study on the <Poem of Pihyangjeong> in Jeongeup

Jeong, Hun

According to legend, Choe Chiwon, a governor-general of the Taean Region songs by a lotus pond with a Pavilion in the Silla period. But we don't know the Pavilion' change in the Goryeo periods, From the Joseon Dynasty' Gwanghaegun period, the Pavilion appeared documentary records.

Look at the records for the Pihyangjeong, When it adds Tasan to Inui Region, that was built. After that times, Lee Jikoing, Park sunggo, Yu ken, Lee sung-gyeong etc has been repaired the Pihyangjeong. If we look at the records, the Pihyangjeong have a several names, Pihyangkag, Pihyangdang, Pahyangjeong, etc in accordance with a function and a place.

The Pihyangjeong have a variety of functions. First, This Pavilion is easy to receipt of guests for its scenic beauty, and near an administrative office. Second, If there are lots of drinking parties at the night, they sleep a same place. Third, in that place, Many people often enjoy retrospection for the ancients. Forth, the Pihyangjeong give a rest place and enjoy the beauties of nature in basically.

【Key words】 : Jeongeup, Choe Chiwon, Pihyangjeong, Pahyangjeong.

정훈

전북대학교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jhwell@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1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2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